

출제 개요

'기업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'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

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,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

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적 이익 추구 간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특정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. 개인과 기업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적 책임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.

<논제 I>에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대립적인 태도를 갖는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. 즉, 제시문 [가], [나], [라]는 공동체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, [다], [마], [바]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로 할 수 있다.

<논제 II>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,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 기준이 되는 제시문 [사]의 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. 이윤 추구만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보는 제시문 [나]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.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시문 [다]의 입장도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을 별개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.

<논제 III>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지를 수리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2차 함수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. 두 개의 2차 함수를 통해 수익 함수를 만들어 최대 수익을 계산하여,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제시문 [나]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
[제시문 출처]

- (가) 홍기빈(2010), 『자본주의』, 책세상, p. 51-52.
- (나) 천재교육(2012), 『고등학교 생활과 윤리』, p. 218.
- (다) 신동아, <한국 기업문화의 아름다운 변신>, 2011년 10월호.
- (라) New York Times, <Social Responsibility That Rubs Right Off>, 2015년 10월 17일.
- (마) 정일근, <둥근, 어머니의 두레밥상>(관련: 비상교육(2014), 『고등학교 문학』, p. 325).
- (바) 천재교육(2014/2016), 『고등학교 사회』, p. 73. / 아시아경제, <소셜믹스·커뮤니티 활동, '입주민=저소득층' 고정관념을 깨자>, 2013년 2월 1일.
- (사) 주간동아, <'공유가치창출(CSV)'이란 사회적 책임(CSR)+α다>, 2014년 959호.